

우리도 이제 국산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우리의 일상생활용품은 외제에 손색없는 우수한 국산품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외제를 쓰지 않아도 별로 불편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면에서 국산품이 생산되어서 완전 국산화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잠깐 생각해 보자. 도금발전에 관한 것을 들고 싶다. 우리나라 일류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은도금종류기구들은 거의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못미쳐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의 무성의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없어서 이러한 형편이 아닌가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양은생산품의 후진성 때문에 지난 여름에 고생한 경험을 소개해 본다.

나는 1984년 미국에 있으면서 「From Traditional Korean Cuisine」 책을 발간하였다. 그 목적은 ① 외국 특히 영·미 기타 영어상용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포 2·3세를 위해, ② 영어를 상용하는 외국인이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③ 대학에서 한국학연구(Korean Study)를 하는 학도를 위해서 펴낸 책이다.

이 책을 나의 경기여고 교사로 있던 때의 제자인 에일대학교수 全惠星박사에게 2권(한권은 대학도서관용, 한권은 全박사에게)을 보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에일대학 Summer school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소개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6.25 전후의 狀況속의 挿画 등으로 빈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 개편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워싱턴에 있는 Woodruff Willson Center에서 열린 회의에서 태동이 된 것이다. 그후 전혜성박사를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

를 거쳐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것이다. 1986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있었던 강습회였다.

오전중에는 한국의 역사·문화·정치·사회·경제 등의 강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교재설정·연수, 저녁에는 한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였다.

다시 말해서 시청각교육 프로젝트, 교과서에

國產品에 자부심을...

朱 月 榮
(大韓家政學會 교문)

사용할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커리큘럼 작성 등으로 교과서 개편작업에 임하게 하는 강습이었다.

이상과 같은 강습회 강사로 의뢰를 받고, 3월부터 한국식 생활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한국음식에 대해 전해진 이야기, 신선로, 탕평채, 설농탕 등의 음식만드는 과정의 英譯 슬라이드 작성, 음식담을 그릇준비, 칠첩반상기, 반상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던 예이다.

신선로그릇(구자틀)이 은제품은 비싸서 양으로 만든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금은방을 돌아보기도 하고 스텐레스 그릇도

배상에도 가 보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양은으로 만들고,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注文을 해보았으나 응해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스텐리스 신선로그릇(구자틀), 사기반상기, 반상 등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한국의 문화소개 강의에 사용하였다.

이제라도 호텔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값싸



게 사용할 수 있는 전통음식의 양은 그릇이生産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家政學徒들은 과학과 기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산업과 과학을 연결시켜 발전시키는 존재라고 믿는다. 가정학을 구라와 특히 독일에서는 Domestic Science라고 하였고, 미국에서는 Home Economics라고 하여 발전되어왔다. 지금은 Home Economics로 통용한다. 綜合科學 또는 生活科學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科學과 技術을 산업발전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국산품의 사용·평가에 까지 참여해서 발전시키고, 문화발전은 물론, 가정생

활의 합리화로 근검절약, 저축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각기 자기의 처지에서 애국의 충정을 가지고 살면서 노력을 할때에 나라의 발전과 우리들의 살기좋은 환경은 물론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상공관계당국에서는 좀더 가까이 업자들을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가를 타진해서 적절하게 도와주고 독려하는 민주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 할줄 믿는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미국가정학회는 매년 각 도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상공회의소에 가정학회에서 推薦을 받은 산품을 각 생산기관에서 출품하고(의·식·주 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물품) 그 사용법, 특징의 설명서, 새로운 기구의 소개, 발명품에 대한 강습까지도 실시한다.

그러니까 학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배우고, 주문하고, 사고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아마 미국가정학회가 이론적인 연구는 물론 계몽관계, 미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點도 많고 일반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필자는 1958년에 미국 ICA 프로그램으로 지도자훈련계획 강습회에 참가한 이래 수차 참석하면서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산업관계 여러분도 항상 다각도로 연구해서, 보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계당국에서는 우수한 국산품 생산업체를 지도육성함으로써 국산품의 질을 높여 외래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무역개방을 해도 소비자가 외래품을 사지 않을 것이며 국산품애용의 기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가정과 교육자들도 教育理念으로 국산품애용,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에 앞장서야겠다. 그러면 외채는 줄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며, 따라서 정신적으로도 여유있는 국민, 서로 돕고 잘사는 민주 국민으로 발전하리라고 믿어마지 않는다.